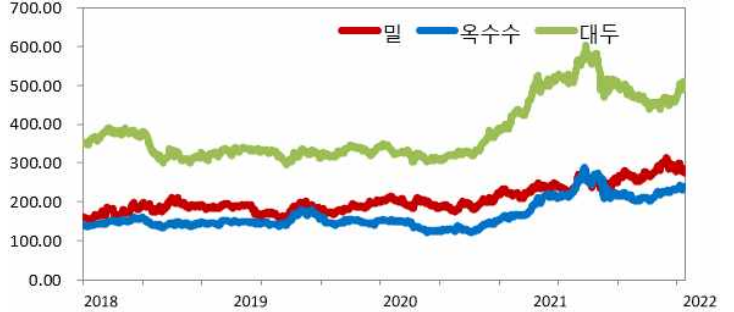


세계 밀 공급 우려 완화로 미국 밀 선물가격 일부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22.01.05)	전일대비	전월평균 ('21.12)	2021 평균
밀	275.48	▼1.4%	290	258
옥수수	237.98	▲0.4%	233	225
대두	509.72	▲0.2%	474	501

단위 : US\$/톤



주1.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 (밀 : 3월, 옥수수 : 3월, 대두 : 1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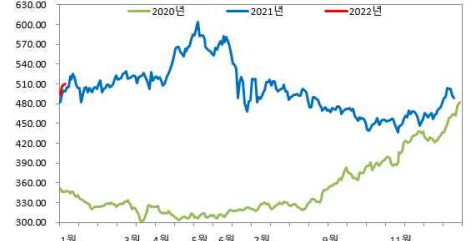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대두 선물시장 상황



미국 밀 선물가격은 남반구 생산자들의 강한 수확으로 전 세계 공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했다. 겨울 밀 W-2는 10월 19일 이후 최저치인 \$7.36까지 하락한 후 부셸당 \$7.46에 14-3/4센트 하락했다. 붉은 겨울밀 KWH-2는 18-1/2센트 하락한 부셸당 \$7.68-1/20였으며, MGEX 3월 봄소맥 MMH-2는 24-1/2센트 하락하여 부셸당 \$9.23-3/4에 마감되었다. 12월 30일로 종료되는 한 주 동안 밀 수출 판매량은 51,100톤으로 가장 낮았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곡물 거래소(Buenos Aires Grains Exchange)에 따르면 2021/22 아르헨티나 밀 수확량은 예상보다 높은 수확량으로 인해 이전에 추산된 2,150만 톤에서 2,18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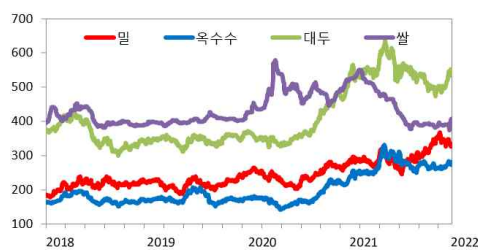
거래자들이 남미 일부 지역의 가뭄 우려와 미국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를 기증하면서 시카고 무역 위원회(Chicago Board of Trade) 옥수수 선물물은 하루 중 대부분 하락한 후 상승세로 마감했다. 3월 옥수수 선물 계약 Q-2는 1-1/2센트 상승한 부셸당 \$6.03-3/4에 거래되었다. 12월 30일자로 마감된 한 주의 옥수수 수출 판매량 256,000톤은 이전 4주보다 81% 낮았으며 애널리스트의 예상보다 낮았다. 아르헨티나의 대부분의 농업 지역은 비가 거의 또는 전혀 내리지 않는 폭염으로 인해 향후 몇 주 동안 옥수수 작물이 고통받는 불리한 조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곡물 거래소가 밝혔다.

수출 판매의 부진과 남미 대두 생산 지역의 건조 기후로 인하여 유지종자에 부담을 주면서 시카고 무역 위원회(Chicago Board of Trade) 대두 선물가격이 하락했다. 대두 SM-2는 7-1/2센트 하락한 부셸당 \$13.87-1/4로 마감했다. 대두박 선물 SMH-2는 톤당 \$2.40 하락한 \$411,000이고, 대두박 BOH-2는 0.54센트 하락한 파운드당 58.90센트이다. 민간 수출업체들은 멕시코에 일일 102,000톤의 대두를 판매했다고 보고했지만 주간 수출 판매는 거의 모든 상품의 무역 기대치에 미달되었다. 12월 30일로 끝난 주 동안 대두 수출 판매량은 449,800톤으로 마케팅 연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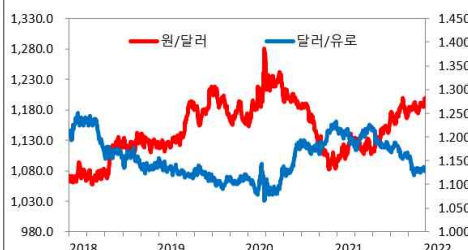
관련동향

- 걸프 대두 수출 프리미엄이 완화되어 선물가격이 일부 하락함. 그러나 건조 기후와 해양 운임비 상승으로 대두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중임. 옥수수와 밀 입찰가는 대체로 안정적인.
- 6일 국제유가는 카자흐스탄 등 공급차질 우려로 상승하였으며, 사우디 OSP 인하 등은 상승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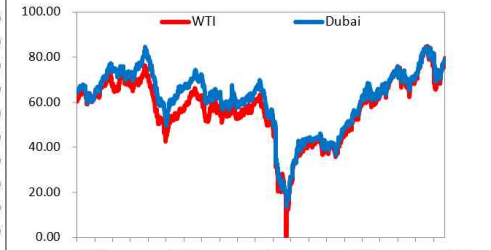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329	▼1.2%	환율	원/달러
	옥수수	280	▼0.7%		달러/유로	1.1298	▲0.3%
	대두	553	-	국제유가	WTI	79.46	▲2.1%
	쌀	407	▲0.5%		Dubai	78.83	▲0.1%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근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21.01.05(수출가격), '22.01.06(환율), '22.01.0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